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The Relations Between Midlife Working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ward/Cost of Family Role and Work Role*

(주)한국리서치
연구원 신기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선화

Hankook Research Co., Ltd.
Associate director : Ki Young Shi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Sun Wha Ok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midlife working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is associated with their reward/cost of family role and work role according to their kinds of job.

For empirical research, 627 married working women living in Seoul, aged between 40-55 answered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ubjects consisted of 301 professional working women and 326 non-professional working women.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frequencies, mean,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 이 논문은 1999년도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였음.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연구인력 지원사업 연구장려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 1) Two sub areas of midlife working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self esteem and life satisfaction—were higher than an average level.
- 2) The more midlife working women performed family role and work role, they perceived reward more than cost.
- 3) For the professional working women, the more they perceived the reward of family role and work role, the higher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was. The more they perceived the cost of family role and work role, the lower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was. These consequences applied to not only general reward/cost of family role and work role but also interrole reward/cost between family role and work role.

For the non-professional working women, general and interrole reward of family role and work role had the posi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ir general cost of spouse role, general and interrole cost of mother role, general cost of work role had the nega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However interrole cost between spouse role and work rol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Finally,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eneral reward of work role had the largest positive effect on midlife working women's self-esteem. General reward/cost of spouse role had the largest effe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I. 문제제기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와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자녀양육의 시기에서 벗어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¹⁾. 가족생활주기와 상관없이 일생 동안 취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한국여성개발원, 1997), 중년기 취업여성들에게 직업역할은 가족역할과 함께 만족과 긴장, 보상과 비용을 부여하는 또 하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중년기 여성의 직업과 그들의 심리적 건강 수준을 나타내 주는 심리적 복지와의 연관성을 파악한 서구의 선행연구들(Barnett & Baruch, 1985; Levinson, 1996)에서는 직업세계로 몰두하는 남편과 독립해 나가는 자녀로 인해 위기감을 경험하는 중년기 여성에게 직업역할은 자아정체감을 형성시켜 주고 심리적 복지 수준을 증진시켜 주는 요인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긍정적 부정적 특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본 연구들(Barnett & Baruch, 1985; Baruch & Barnett, 1986; Thoits, 1992)에서는

단순히 개인이 점유한 역할 수보다 특정역할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보상/비용이라는 질적인 측면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서구와는 달리 자녀의 대입입시와 결혼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신기영·옥선화, 1997)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특성상 직업역할은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긴장의 원천일 수 있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에서 경험하는 보상과 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은 결국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이나 삶에 있어 가족과 직업 중 어느 영역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에 관여하면서 경험하는 보상/비용에는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모두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역할 자체내의 보상/비용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가족과 일이 서로 중첩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보상/비용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족역할

1) 1996년 현재 전체 취업여성 8,568,000명 중 중년기에 해당하는 40세에서 59세 취업여성이 3,011,000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해당한다(통계청, 1997).

에 직업역할이 첨가된다거나 직업역할에 가족역할이 첨가되면서 경험하는 보상/비용은 전업주부들은 경험할 수 없는 취업여성만의 고유한 역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역할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보상/비용 뿐 아니라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이 중첩된 결과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상/비용의 영향력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년기라는 특성 외에도 이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즉 직종별 분석을 통해 직업구조상의 계층적 차이를 반영하고(이미숙, 1995), 개인의 가족환경과 직업환경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대다수는 생산·판매·서비스직과 같은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임금에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서(이근희·조명기, 1991) 직업역할에 대한 기대가 낮고, 직업역할보다 가족역할을 더 중요시하는(O'Neil & Greenberger, 1994)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년기 여성의 경우 직업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기 때문에 직업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비전문직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기혼취업여성을 전문직과 비전문직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기혼 취업여성의 다중역할수행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자녀의 초기 사회화 역할로 규정하고 젊은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이중역할의 긴장이나 갈등 측면에만 초점을 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중역할의 긴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중년기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다중역할수행이 긴장 뿐 아니라 보상과 만족의 원

천이라고 보고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가족역할과 직업역할 중 어느 역할의 어떠한 특성이 중년기 기혼 취업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자아정체감 인식과 삶의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파악해 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실증적인 분석작업을 통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가족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란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서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등의 개념 중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전영자, 1992).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정서적 차원에 초점을 두어 정의 내렸는데, 심리적 복지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와 비교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체적인 판단을 심리적 복지라고 하였다(Bradburn, 1969, Diener, 1984에서 재인용).

이 후 Bryant와 Veroff(1982)는 심리적 복지를 '생활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 건강에 대한 자기 지각으로서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정의함으로써 정서적 차원에다 인지적인 차원의 평가를 추가시켰고, 그 영향권을 생활 전체로 확장시켰다. 심리적 복지는 주로 다차원적 차원에서 측정되었는데 긍정적인 차원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행복감, 생활만족도 등이 포함되었고(Baruch & Barnett, 1985; Bryant & Veroff, 1982), 부정적인 차원으로는 우울증, 불안, 디스트레스 등이 포함되었다(장재정, 1987; Baruch & Barnett, 1986). 그러나 최근에는 심리적 복지를 긍정적, 부정적 어느 한 가

지 차원에서 하위영역을 구성하여 측정하거나 특히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영역과 부정적인 영역을 함께 측정할 때 심리적 복지에 관한 일관적인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Diener, 1991), 심리적 복지를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측정할 경우 임상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척도를 일반인에게 적용시킬 때의 문제점 등 때문이라고 본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논의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부정적 요인의 부재로 보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긍정적 요인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로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자 자신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Pearlin & Schooler, 1978)으로 개인의 심리적 복지 상태를 결정해 주는 주요 구성 영역(Ryff, 1995)이라 볼 수 있다. 가족역할의 축소로 인해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기 쉬운 중년기 여성(김명자, 1988, 1989)의 취업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는 하위영역으로 자아존중감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는 하위 영역으로 최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 관련 연구들(Macdermid et al, 1997; Greenberger & O'Neil, 1993)에서 많이 사용되는 생활만족도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 때 생활만족도란 현재의 자신의 생활상태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복지 상태가 보다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Campbell et al, 1976:132)는 측면에서 생활만족도를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관여하는 가족역할이란 배우자나 어머니로서, 직업역할이란 직업인으로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기대되어지는 행위 양식(옥

선화, 1982)이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수행할 때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은 보상과 비용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역할의 보상/비용 개념은 역할정체감 이론의 논의에서 부각되었다. 이에 따르면 다중역할에 관한 두 가지 입장들 즉 역할축적 이론과 역할긴장 이론은 주로 역할의 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특정 역할의 어떠한 특성이 심리적 복지를 손상시키고, 증진시키는가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Baruch & Barnett, 1986). 따라서 역할의 점유 수 자체보다 개인이 역할에 관여할 때 지각하는 만족이나 긴장과 같은 역할 경험의 질적인 측면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를 예측하는 데 보다 더 영향력 있는 변수(Wortman et al, 1990)라고 본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 보상과 비용이란 개념이다.

보상과 비용이란 개념은 본래 사회교환이론에서 사용되던 개념인데 보상이란 개인에게 주어지는 만족감, 기쁨 등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Sabatelli & Shehan, 1993). 이에 비해 비용은 일련의 행동을 수행하려 할 때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모든 요인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이 싫어하는 감정, 상태, 관계, 상호작용, 주변환경 등이 포함된다(Sabatelli & Shehan, 1994). 이러한 개념들에 따르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병행할 때 생기는 만족이나 기쁨, 경제적 보상, 사회적 인정 등은 보상으로, 긴장이나 부담감,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은 비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은 크게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영역은 배우자, 어머니, 직업인이라면 결혼 유무나 취업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각각의 역할 자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상/비용 영역이고, 두번째 영역은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이 서로 중첩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비용 영역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배우자역할, 어머니역할, 직업역할을 서로 간의 관련성이 없는 분리된 영역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역할 자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측면의 보상/비용 요인만 파악하였다(이희정·이숙현, 1995; Aneshensel et al. 1981). 또한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중첩성을 파악할 때도 주로 갈등과 긴장 측면에 초점을 두었고(이기영·구혜령, 1992; 전영자, 1991, 1992), 두 역할의 중첩에 따른 보상 차원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배우자역할, 어머니역할,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을 일반적인 측면과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이 중첩되는 측면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배우자역할, 어머니역할,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포함시켜 보고자 한다.

3. 관련 연구 고찰

1) 개인 배경 변수

(1)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년기 여성의 연령에 따른 심리적 복지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심리적 복지 수준에 차이가 없다(김명자, 1988; 진미정·육선화, 1993), 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아진다(박경숙, 1993)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만족스럽고 자율적인 직업을 갖게 되어 소득 수준도 향상되고, 직업 만족도도 높아 결과적으로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ealin & Schooler, 1978)고 한다.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집단일수록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Thoits, 1992), 중년기에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력이 큰 시기이므로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대처자원이 증가하여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막내자녀의 위치는 주로 막내자녀의 독립과 연결되어 중년기 여성에게 매우 의미있는 변수로 다루어진 연구들이 다수 있으나 연구결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막내자녀가 고졸 이상일 때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증진된다(김은아, 1992)고 하거나, 막내자녀의 위치와 심리적 복지간에는 관련이 없다(박경숙, 1993)고 하는 등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직업 관련 변수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본인소득은 직업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으로 자신의 직업지향성과 심리적 복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여성의 본인소득이 클수록 자존감이 증가하고, 가정내 경제적 기여도가 커져 여성에게 자원으로 작용하여 부부간의 역할긴장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증가한다(Spitze, 1988)고 한다.

취업동기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경제적 동기와 경제외적 동기 등으로 구분되어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기혼 취업여성이 경제적 동기로 취업했다고 지각할수록 직업에 대한 애착이나 만족도가 낮고, 가족역할과 직업역할간의 갈등을 많이 느껴서 결과적으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저하된다(Keith & Schafer, 1983)고 한다.

직장근무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취업여성은 가족내에서 역할 과중을 경험하고 우울증이 증가하며(Keith & Schafer, 1983),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연숙 외, 1991). 한편 근무시간의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기혼 취업여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직장 조건이라고 언급된다(박성옥·김정훈, 1995).

2)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1) 배우자 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중년기는 가족관계의 중심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한 부모 역할에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남편, 아내역할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 때 배우자역할의 두 가지 차원의 보상 중 일반적인 측면의 보상이라면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애정, 동반자의식, 의사소통과 여가활동을 공유하면서 느끼는 만족 등(Baruch & Barnett, 1986)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중년기의 소외감을 위로해 주는 남편의 존재(Neugarten, 1975)가 중요한 보상이 될 수 있다.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의 보상에는 직업경험이 자원으로 작용하여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권력이 증가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양이 증가된다(김혜연, 1995)는 점, 직업생활을 함으로써 남편의 직업세계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고(박미령, 1988), 남편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한다는 점(Levinson, 1996)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부양자역할을 공유해 주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감사(박미령, 1988), 아내의 직업역할 수행에 대한 남편의 심리적, 행동적 지원(조은숙, 1997) 역시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 보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직종별로 보면 전문직 여성들이 비전문직 여성들에 비해 결혼적응이나 결혼만족은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배우자역할의 일반적인 보상이 심리적 복지와 갖는 긍정적인 관련성도 전문직 여성들이 비전문직 여성들에 비해 더 강하다(Bauch & Barnett, 1986). 한편으로 배우자역할과 직업역할이 중첩되는 측면에서는 전문직 여성의 경우 직업역할에 헌신함으로써 남편의 불만을 사거나, 남편과의 지위경쟁으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아진다(Greenberger & O'Neil, 1993)고 한다. 반면에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취업여성은 취업을 일생에 걸친 경력(career)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수입을 올리기 위한 일(job)로서 인식하고, 실제로 가계 경제 기여도가 높아서 이러한 요인들이 보상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복지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친다(Moen, 1991).

그러나 중년기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중년기 여성이 평등성을 추구하고, 가족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아정체감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과정에서 부부간에 긴장감이 유발되어 부부관계가 불안정해진다(김명자, 1989: 67)고도 한다. 이러한 점

에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배우자역할의 비용이 심리적 복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년기 여성은 결혼초기에 비해 남편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성격이 맞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며, 승진이나 퇴직 등 중년기 남편의 직장생활과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 있다(루빈, 1996).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배우자역할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볼 수 있다.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의 비용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이중역할의 갈등이라 볼 수 있는데 배우자역할과 직업역할을 병행할 때 경험하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한 갈등, 두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피로와 같은 긴장갈등(Voydanoff & Donelley, 1984)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과 같은 양상이 직종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를 살펴 보면 전문직 취업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에 대한 표준이 높고, 두 가지 역할을 다 잘해내려는 의지가 강하므로 그만큼 이중역할의 갈등이 심하고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윤옥, 1993; 전영자 1992)고 한다. 이에 비해 비전문직 취업여성들은 자신들의 일의 성격이 단순하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영역간의 구분이 명확하고(조은숙, 1997), 직업역할보다 가족역할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중역할의 갈등에 따른 비용 요인이 낮고,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도 약하다(O'Neil & Greenberger, 1994)고 한다.

(2) 어머니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중년기 여성의 경우 취업을 했더라도 어머니역할을 자아정체감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고, 자녀와의 일체감이 높은 편이다(진미정·옥선화, 1993). 이들이 어머니역할 자체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보상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정, 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인정, 어머니역할 수행을 통한 어머니 자신의 성장(현은강, 1993), 특히 중년기와 관련해서 성장해서 독립해 나가는 자녀를 보는 보람(Baruch & Barnett, 1986)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어머니역할에 직업역할이 중첩되면서 생기는 보상이라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독립심이 증가하고, 자녀와의 갈등을 직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루빈, 1996; 박미령, 1988)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행동적 지원,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자녀의 자부심,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자녀의 독립심과 자율성의 증가(Baruch & Barnett, 1986)는 등도 중요한 보상이라 볼 수 있다.

부모역할의 개념이 다차원적이며 동시에 여러 가족원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부모역할이란 개인에게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압박감과 긴장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규정된다(현은강, 1993). 중년기 이후 자녀들이 독립하는 서구와는 달리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등의 과정에서 어머니의 시간과 에너지 투자량이 큰 입학까지의 과정에서 어머니의 시간과 에너지 투자량이 큰 우리 상황에서는 중년기가 결코 자녀 양육의 의무에서 해방된 시기라고 볼 수 없다(신기영·육선화, 1997).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일반적인 어머니역할의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중년기 가족의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자녀와의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교육비·결혼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녀의 성장에 따른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무감(진미정·육선화, 1993; McCubbin & Patterson, 1983) 등을 들 수 있다.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역할 비용으로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부족, 자녀와의 애정적인 유대 약화,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한 미안함, 어머니역할과 직업역할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신체적인 피로감(전영자, 1992; Small & Riely, 1990)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McCubbin & Patterson, 1983), 자녀들의 무리한 어머니역할요구, 어머니의 직업 활동에 대한 자녀들의 불만 등(김양희 외, 1992)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직종에 따라서는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유희정, 1995: 238-240) 기대와 실제의 불일치로 인해 불만을 느껴서 어머니역할의 비용이 높을 수 있다. 특히 전문직 취업여성이라 하더라도 수입이나 직업지위와 관계없이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역할에 따른 비용을 가장 크게 지각하고,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복지 수준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양연숙, 1997; 장윤옥, 1993). 생산직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여성의 가장 큰 비용이 어머니역할과 관련해서 나타난다(김양희 외, 1992)고 하며 어머니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인한 죄책감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직종에 상관없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어머니역할의 비용은 심리적 복지와 부정적인 관련성을 맺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연구를 통해 이 두 가지의 관련성이 직종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3)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직업은 인간의 태도와 활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업을 통한 경제적 수입은 가족내의 권력관계에서 자원으로 작용하고, 직업활동을 통해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심리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Mottaz, 1986).

직업역할 자체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보상은 직업의 내재적 가치에 의한 보상과 외재적 가치에 의한 보상이 있는데 내재적 가치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와 관련된 보상으로 직업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 자아실현, 일이 자신의 적성과 기술에 맞아서 경험하는 만족감(이기영·구혜령, 1992; Mottaz, 1986) 등이다. 직무를 둘러싼 환경 요인과 관련이 있는 직업의 외재적 가치(Mottaz, 1986)에 따른 보상에는 보수나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 직장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 직장의 복지제도 등이 포함된다.

가족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의 보상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배우자역할, 어머니역할의 긍정적인 측면이 직업역할로 전이되어(Crouter, 1984) 이들이 직업역할을 수행할 때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남편과 자녀의 이해와 지원으로 직업역할에 더 충실해질 수 있다는 점, 아내나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보상으로 직업역할의 스트레스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배우자역할과 어머니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지식이나 기술이 직업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전이 등을 들 수 있다.

직종과 관련해서 전문직이나 상위직 종사자들이 직업역할의 내재적 가치에 따른 보상을 많이 느끼고(Mottaz, 1986), 직업역할의 보상이 좋아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여성 역시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가족의 인정과 존중을 즐긴다(유가호 외, 1991)

한편 직업역할 수행시 경험하는 긴장이나 갈등과 같은 비용은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인 직업역할의 비용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수행하는 자신의 일과 관련된 내재적 가치 측면에서 직무의 질적 부담도와 양적 부담도를 들 수 있다(조은숙, 1997). 또한 일의 외부적 환경 조건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비용이라면 실직의 불안, 작업환경의 유해성 등을 들 수 있다(Mottaz, 1986). 이 밖에 중년기 특성과 관련해서는 퇴직에 대한 불안감, 후배들로부터의 스트레스, 연령 증가로 인해 더 나은 직장이나 직종으로 옮길 수 없다는 스트레스 등(Baruch & Barnett, 1986)을 들 수 있다.

가족역할과 중첩된 직업역할의 비용이라면 가족역할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직업역할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직업역할을 수행할 때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제약 요인(Crouter, 1984)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편과 자녀의 요구로 인해 직무수행에 소홀해지는 데 따른 스트레스,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 자신의 직업상의 목표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 남편이

나 자녀로 인해 직업상의 투자 부족에 따른 불만을 직업역할의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직종과 관련해서 전문직 취업여성은 직업역할에, 비전문직 취업 여성은 가족역할에 더 높은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O'Neil & Greenberger, 1994) 가족역할이 직업역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각기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역할의 비용은 하위영역별로 어떠한 수준을 보이고, 심리적 복지와는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또 이러한 관련성이 전문직과 비전문직이라는 직종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직종별로 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개인 배경 변수(사회인구학적 변수, 직업관련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직종별로 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가족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직종별로 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직종별로 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제반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이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5세 사

이의 막내자녀가 중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배우자가 있는 취업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가족역할 하위영역에 배우자역할, 어머니역할만이 포함되므로 가족형태를 핵가족으로 제한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직종 분류는 홍두승(1983)의 직업별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와 기혼 취업여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미숙, 1995; 조은숙, 1997)을 토대로 하여 전문직에 의사, 법조인, 교수, 고위공무원, 경영관리자와 같은 고위 전문직과 교사, 약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기술직을 함께 포함시켰다. 비전문직으로는 단순사무직, 생산직, 판매직, 서서비스직을 포함시켰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직종별로 볼 때 전문직이 301명으로 48%를 차지하였고, 비전문직이 326명으로 52%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전문직이 평균 46세, 비전문직은 45세이며, 교육수준은 전문직의 경우 75.1%가 대졸이었고 비전문직의 경우 고졸의 비율이 60.4%로 가장 높았다. 본인소득과 가계소득은 전문직이 각각 207만원, 484만원이었고, 비전문직이 117만원, 299만원이었다. 막내자녀의 위치는 중, 고등학교 재학이 6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주당 근무시간은 전문직이 평균 53.6시간, 비전문직이 평균 54.7시간으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

1) 심리적 복지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를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자신과 생활 전반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는 하위영역으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포함된다. 자아존중감 척도로는 Rosenberg(1972)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척도로는 Campbell, Converse &

Rodgers(1976)가 구성한 '생활만족도' 척도 12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비참한-즐거움', '공허한-충만한' 등의 대조적인 평가 용어에 대해 응답자가 7개 응답칸 중 하나에 표시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자아존중감 척도가 .84, 생활만족도 척도가 .93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2) 취업동기 및 근무시간의 융통성

선행연구들(구혜령·이기영, 1992; 이연숙 외, 1991)에서 사용한 취업동기 척도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경제적 취업동기와 경제외적 취업동기로 구분하였는데 경제적 취업동기는 생계유지, 가계보탬, 경제적 여유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며 경제외적 동기는 자아실현, 적성활용, 사회참여의사 등을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근무시간의 융통성 척도는 선행 연구(조은숙, 1997)를 바탕으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3에서 .84로 신뢰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3) 가족역할의 보상과 비용

(1) 배우자역할의 보상/비용

가족역할이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기대되어지는 행동양식이며, 하위 영역으로는 배우자역할과 어머니역할이 포함된다.

배우자역할의 보상이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배우자역할에 관여할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만족, 기쁨 등의 심리적 차원과 이들에게 만족을 주는 상호관계, 상황, 경제적, 사회적 제요인을 의미한다. 배우자역할의 보상 척도는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보상 척도는 선행연구들(박미령, 1988; Baruch & Barnett, 1986)을 바탕으로 부부관계의 애정, 성, 동반자의식, 의사소통, 여가활동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경험에 관한 5개 문항과, 중년기 소외감 위로 문항을 첨가시켜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 보상 척도는 선행연구(김혜연, 1995; 박미령, 1988)에서 사용된 척

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취업에 따른 부부관계에서의 의사결정권 증대, 남편의 직장생활 이해 증가, 남편에 대한 의존 감소, 남편과의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는 직업, 부인의 직업활동에 대한 남편의 감사, 아내의 취업에 대한 정신적 지원, 가사분담 지원 등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배우자역할의 비용이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배우자역할에 관여할 때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같은 심리적인 차원과 이들의 역할 행동에 제약을 주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 요인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배우자역할 비용 척도 중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비용 척도는 선행연구(Baruch & Barnett, 1986)들을 바탕으로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직장문제, 건강문제, 생활습관상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중년기 부부관계에서의 소외감 등에 관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 비용 척도는 선행연구(장윤옥, 1993; Small & Riley, 1990)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는데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하는 데에 따른 신체적인 피로, 남편의 일상적인 내조와 직장생활 내조 부족에 따른 미안함, 아내의 직업지위에 대한 남편의 경쟁의식에 따른 부담감, 무리한 내조 요구에 따른 부담감, 직장생활에서의 부정적인 사건을 배우자역할에 전이시키는 것에 따른 미안함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어머니역할의 보상/비용

어머니역할의 보상이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어머니역할에 관여할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만족, 기쁨 등의 심리적인 차원과 이들에게 만족을 주는 상호관계, 상황, 경제적, 사회적 제 요인들을 의미한다. 어머니역할의 보상 척도 중 일반적인 어머니역할의 보상 척도는 선행연구(현은강, 1993; Amatea et al, 1986)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애정, 어머니에 대한 인정, 자녀와 함께 하는 즐거움, 자녀들의 독립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보람, 자녀를 도와주는 기쁨, 어머니역

할을 통한 자신의 성장 등을 묻는 6개 문항이다.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역할 보상 척도는 선행연구(김양희 외, 1992; O'Neil & Greenberger, 1994)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는데 직업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증가, 자녀와의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는 직업, 자녀의 생활에 대한 이해 증가, 어머니 취업에 대한 자녀의 자부심, 자녀의 자율성 증가, 어머니취업에 대한 정신적 지원과 가사분담 지원을 묻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역할의 비용이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어머니역할에 관여할 때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같은 심리적인 차원과 이들의 역할 행동에 제약을 주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 요인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어머니역할 비용 척도 중 일반적인 어머니역할 비용 척도는 선행연구(Baruch & Barnett, 1986; McCubbin & Patterson, 1983)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문항들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장한 자녀와의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녀의 관리 및 지도의 어려움, 자녀들에게서 느끼는 실망감, 경제적 스트레스, 자녀의 성장에 따른 허무함 등 6개 문항이다.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역할 비용 척도는 가족역할과 직업역할간의 이중역할갈등에 관한 선행연구(장윤옥, 1993; Small & Riley, 1990)의 척도들 중에서 어머니역할과 관련된 척도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 어머니역할과 직업역할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신체적인 피로, 자녀와의 애정적인 유대약화,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한 미안함, 자녀들의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자녀들의 어머니역할에 대한 무리한 요구, 직장생활에서의 부정적인 사건을 어머니역할로 전이시키는 것에 따른 미안함 등을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직업역할의 보상/비용

직업역할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기대되어지는 행동양식을 의미하며, 직업역할의 보상은 이들이 직업역할에 관여할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만족, 기쁨 등의 심리적

차원과 이들에게 만족을 주는 상호관계, 상황, 경제적, 사회적 제 요인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직업역할의 보상 척도 중 일반적인 직업역할의 보상 척도는 선행연구(Baruch & Barnett, 1986; Mottaz, 1986)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하위영역 구분에 따라 직무자체와 관련된 보상 척도 3개 문항, 직장환경과 관련된 보상 척도 4개 문항, 사회경제적 보상 척도 1개 문항, 중년기와 관련된 척도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역할이 직업역할로 중첩됨으로써 경험하는 보상 척도는 선행연구(Crouter, 1984)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는데 남편과 자녀의 이해와 지원으로 인한 직업역할 전념 정도, 남편과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직업역할의 스트레스 해소 정도,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직업역할의 비용이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직업역할에 관여할 때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같은 심리적인 차원과 이들의 역할 행동에 제약을 주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 요인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직업역할의 비용 척도 중 일반적인 직업역할의 비용 척도도 일반적인 보상 척도처럼 직무 자체와 관련된 비용 척도 4개문항, 직장환경과 관련된 비용 척도 2개 문항, 사회경제적 비용 척도 2개 문항, 중년기 관련 비용 척도 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역할에 가족역할이 중첩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비용 척도는 선행연구(이동열, 1996; 장운옥, 1992)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는데 가족관련 일로 인한 직무수행 소홀, 가족으로 인한 직업상의 계획 수정, 직업상의 발전을 위한 투자 부족 등의 3가지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 척도는 응답이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70에서 .81까지 분포하여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앞서 1998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92명의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 심리적 복지 척도 문항에 관한 신뢰도와 문항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문항을 수정, 보충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7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종사하는 직장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 중·고등학교를 통하여 취업한 학부모의 자료를 얻는 방법, 대학생을 조사원으로 선정하여 취업 여성들로부터 직접 자료를 얻게 하는 방법 등을 병용하였다.

총 7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670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89%), 이 중 부실기재와 이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지 27부를 제외한 총 627부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이 사용되었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가족역할,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을 사용하였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개인 배경 변수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와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과

추후검정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제반 변수들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 가족 및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의 전반적 경향 및 집단 차이

1)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 경향 및 집단 차이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자아존중감이나 생활만족도 모두 척도상의 중간점(자아존중감: 30점, 생활만족도: 48점)보다 높아서 중간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고 하위 영역간에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직종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전문직 집단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비전문직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자아존중감: $t=5.74, p<.001$, 생활만족도: $t=6.06, p<.001$). 이는 전문직 취업여성이 비전문직 취업여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고 전반적으로 보수, 사회적 인정, 직업 환경면에서 높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취업여성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기(김혜연, 1995; 이미숙, 1995) 때문이라고 본다.

2)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의 전반적 경향 및 집단 차이

〈표 2〉에 따르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전문직

〈표 1〉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전반적 경향 및 집단 차이

(N=전체 627, 전문직 301, 비전문직 326)

변 수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척도 점수범위	t
심리적 복지 자아존중감	전문직	36.74	5.29	10-50	5.74***
	비전문직	34.23	5.68	10-50	
생활만족도	전문직	61.21	11.80	12-84	6.06***
	비전문직	55.15	13.20	12-84	

*** $p < .001$

〈표 2〉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의 전반적 경향 및 집단 차이

(N=전체 627, 전문직 301, 비전문직 326)

변 수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척도 점수범위	t
배우자 역할 보상	전문직	47.05	7.09	13-65	3.13**
	비전문직	45.33	6.67	13-65	
배우자역할 비용	전문직	32.35	6.51	13-65	-4.15**
	비전문직	34.56	6.80	13-65	
어머니역할 보상	전문직	50.54	6.03	13-65	3.00**
	비전문직	49.07	6.23	13-65	
어머니역할 비용	전문직	35.79	7.62	13-65	-4.05***
	비전문직	38.24	7.48	13-65	
직업역할 보상	전문직	61.43	8.60	17-85	5.73***
	비전문직	57.45	8.80	17-85	
직업역할 비용	전문직	37.94	8.72	17-85	-3.99***
	비전문직	40.80	9.27	17-85	

** $p < .01$, *** $p < .001$

이나 비전문직 모두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통해서 비용보다 보상을 더 많이 지각하였고, 각 역할의 일반적인 영역과 중첩되는 영역 모두에서도 보상이 비용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보상과 비용의 수준을 역할별로 비교해 볼 때 어머니역할에서의 보상과 비용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우자역할, 직업역할 순으로 나타나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자신의 다중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종별 차이를 볼 때 일반적인 어머니역할 보상, 어머니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 보상, 어머니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 비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역에서는 모두 전문직과 비전문직간에 집단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즉 전문직 취업여성이 비전문직 취업여성에 비해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을 더 높게, 비용을 더 낮게 지각하였다

특히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보상이 비용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양육기에서 벗어난 중년기 여성들이 직업역할에 더 몰두할 수 있으므로 가족역할과 직업역할간의 긴장요인이 줄어들고, IMF 관리 체제 하에서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소득, 자부심 등이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개인 배경 변수에 따른 심리적 복지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볼 때 중년기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이 대학원졸 이상이고, 가계소득이 501만원 이상일 때 교육수준이 대졸이하 집단과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하 집단들보다 자아존중감(교육수준: $F=3.50, p<.05$, 가계소득: $F=3.76, p<.01$)과 생활만족도(교육수준: $F=5.71, p<.05$, 가계소득: $F=3.46, p<.01$)가 높았고, 막내자녀의 위치가 대학교 재학일 때가 중·고등학교 재학인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F=6.02, p<.01$).

또한 직업관련 변수에서는 본인소득이 201만원 이상일 때가 그 이하일 때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

고($F=6.04, p<.001$), 경제외적인 취업동기와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높을 때 자아존중감(경제외적 취업동기: $F=18.74, p<.001$, 근무시간의 융통성: $F=4.80, p<.001$)과 생활만족도(경제외적 취업동기: $F=10.26, p<.001$, 근무시간의 융통성: $F=3.89, p<.05$)가 높았다.

중년기 비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만 영향을 미쳐 연령이 50-55세인 집단이 40-44세인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았다($F=5.35, p<.01$). 직업관련변수에서는 경제적 취업동기가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낮았고($F=5.86, p<.01$), 경제외적 취업동기와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높을 때 자아존중감(경제외적 취업동기: $F=39.10, p<.001$, 근무시간의 융통성: $F=7.41, p<.001$)과 생활만족도(경제외적 취업동기: $F=45.33, p<.001$, 근무시간의 융통성: $F=8.16, p<.001$)가 높았다.

비전문직 취업여성이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는 경향이 전문직 취업여성에 비해 더 높더라도(이미숙, 1995) 경제외적 취업동기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중년기 비전문직 취업여성에게 있어서 직업이 갖는 의미가 경제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이나 사회에의 공헌과 같은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의 절대적인 양보다 근무시간의 조절가능성을 의미하는(조은숙, 1997)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에게 있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연구 문제2)

1)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배우자역할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1)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배우자역할 보상에 따른 심리적 복지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배우자역할 보상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직종과 상관없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모두 전반적인 배우자역할의 보상과 하위영역별 배우자역할의 보상에 따라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검

증 결과 배우자역할의 보상이 높은 집단이 중간 이하 집단들보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거나, 혹은 보상의 수준에 따라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애정, 동반자 의식,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보상을 통해 심리적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는 결혼의 정서적 질이 여성에게 중요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이 여성의 심리적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이숙현·이희정, 1995)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의 보상 역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직업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취업 여성의 부부관계에 직업이 부부간의 역할공유를 가져오고, 부부간의 이해를 증진시킴에 따라 더욱 애정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서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2)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배우자역할 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배우자역할의 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표 3>을 통해서 보면 중년기 여성들이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 외로움, 남편의 직장문제나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비용은 직종에 상관없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인 배우자역할의 비용이 높은 집단이 중간 이하 집단이나 낮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전문직: $F=10.27, p<.001$, 비전문직: $F=15.31, p<.001$)이나 생활만족도(전문직: $F=26.23, p<.001$, 비전문직: $F=38.83, p<.001$)가 의미있게 낮게 나타났다. 한편 중년기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 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의미있는 영향을

<표 3>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배우자역할 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N=전체 627, 전문직 301, 비전문직 326)

직 종	변 수	집단(빈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평균	F	평균	F
전문직 취업여성	배우자역할 비용	낮은 집단(110)	38.96(a)	18.43***	67.06(a)	34.69***
		중간 집단(103)	36.03(b)		59.44(b)	
		높은 집단(88)	34.81(b)		55.30(c)	
전문직 취업여성	일반적 배우자 역할 비용	낮은 집단(113)	38.35(a)	10.27***	65.60(a)	26.23***
		중간 집단(109)	36.33(b)		61.83(b)	
		높은 집단(79)	35.03(b)		54.06(c)	
전문직 취업여성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비용	낮은 집단(100)	38.20(a)	6.64**	65.25(a)	10.51***
		중간 집단(120)	36.39(b)		60.22(b)	
		높은 집단(81)	35.47(b)		57.69(b)	
비전문직 취업여성	배우자역할 비용	낮은 집단(106)	36.02(a)	8.32***	60.04(a)	19.10***
		중간 집단(116)	34.09(b)		55.67(b)	
		높은 집단(104)	32.63(b)		48.66(c)	
비전문직 취업여성	일반적 배우자 역할 비용	낮은 집단(119)	36.52(a)	15.31***	61.45(a)	38.83***
		중간 집단(112)	34.29(b)		55.36(b)	
		높은 집단(95)	32.13(c)		48.03(c)	
비전문직 취업여성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 비용	낮은 집단(88)	34.88	.85	56.19	1.53
		중간 집단(149)	34.09		55.17	
		높은 집단(89)	33.81		53.09	

** $p < .01$, *** $p < .001$

미쳤지만 중년기 비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년기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 추후검증 결과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 비용이 높은 집단이 중간 이하나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F=6.64, p<.01$)과 생활만족도($F=10.51, p<.001$)가 의미있게 낮았다.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모두 잘 해내려는 경향이 높은(O'Neil & Greenberger, 1994) 중년기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 두 역할을 병행할 때 경험하는 시간적,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전문직 취업여성과는 달리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둘 다 잘 해내려는 의지가 낮고(O'Neil & Greenberger, 1994), 일의 성격이 비교적 단순하여 부담도가 낮아서 직업과 가족생활간의 구획화가 잘 된다(조은숙, 1997). 따라서 중년기 비전문직 취업여성은 전문직 취업여성에 비해 가정과 직장을 서로 분리되는 영역이라 인식하고 역할에 임하게 되므로 직장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가정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약하고 결과적으로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의 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어머니역할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1)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어머니역할 보상에 따른 심리적 복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직종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어머니역할의 보상, 하위영역별로 일반적인 어머니역할 보상,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역할 보상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추후검증 결과 각 영역의 보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어머니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자녀로부터의 애정, 존중, 어머니로서의 보람 등이 증가할수록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미취학기나 학동기에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역할과 직업역할간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들(박성옥·김정훈, 1995)에 따르면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어머니역할과 직업역할간의 갈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역할의 보상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자녀들의 자부심과 인정, 자녀의 독립심 증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행동적인 지원 등과 같은 보상 요인들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에 어머니역할만 수행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의 성장에 따라 허탈감이나 위기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직업역할로 인한 보상 요인이 어머니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족의 원천을 다양하게 하여 심리적 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어머니역할 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직종에 상관없이 심리적 복지는 전반적인 어머니역할의 비용, 하위영역별 비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검증 결과 어머니역할 비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중간 이하 집단들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어머니역할의 일반적인 비용은 청소년기 자녀와 세대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서의 갈등(McCubbin & Patterson, 1983), 자녀의 교육과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적·경제적인 부담감, 여성의 어머니역할 상실에 따른 허탈감 등을 들 수 있다. 어머니역할이 개인에게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뿐 아니라 부정적인 압박감도 초래하므로(현은강, 1993)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어머니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비용도 보상 못지 않게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역할 비용에 있

어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자신의 직업활동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원조나 교육을 제대로 못 해 준 다거나, 청소년기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킬까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 요인들이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의 비용은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역할의 비용은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역할과 직업역할 중에서는 가족역할을, 가족역할 중에서는 배우자역할보다 어머니역할을 더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는(옥선화, 1982) 기혼 취업여성들의 역할관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어린 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담은 적지만, 청소년기 자녀의 교육과 진학 문제에 있어 어머니역할의 수행양이 많이 요구되고(신기영·옥선화, 1997), 자녀간의 일체감과 정서적 유대가 자녀의 발달 단계 전반에 걸쳐 유사하게 높게 나타나는(유은희, 1991) 우리나라 모-자녀 관계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역할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연구 문제 3)

1)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역할 보상에 따른 심리적 복지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역할의 보상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살펴 보자면, 직종에 상관없이 심리적 복지는 전반적인 직업역할의 보상, 하위영역별 보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검증 결과 직업역할 보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중간 이하 집단들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일의 성격, 보수나 승진 기회, 복지제도, 동료와의 관계 등에 만족할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이 증가하였다. 특히 중년기라는 인생주기상의 특성과 관련되어 나이가 들수록 일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며, 직장에서 안정된 위치를 차

지하고, 직업활동을 통해 중년기 위기감을 해소하는 등의 긍정적 요인들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의미있는 보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배우자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의 보상, 어머니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의 보상은 직종과 상관없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남편과 자녀의 이해와 지원으로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고, 남편과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배우자역할, 어머니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교육적 효과가 직업역할에도 전이되어(Crouter, 1984)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

2)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역할 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표 4〉를 통해서 보면 전문직의 경우에는 직업역할의 비용이 전반적으로나 하위영역별로 심리적 복지에 모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고, 비전문직의 경우에는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검증 결과 직업역할의 비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이나 중간 이하 집단들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직업역할의 비용이란 직무의 질적·양적 부담, 작업환경의 유해성, 실직의 불안, 중년기와 관련해서 퇴직에 대한 압박감, 후배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 직업이 여성 개인의 자기수용이나 가치인식인 자아존중감(Pearlin & Schooler, 1978)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앞서 제시한 직업역할의 보상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직업역할의 비용도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의 비용으로는 가족의 요구로 인해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직장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점(Crouter, 1984), 가족 때문에 자신의 직업상의 목표나 계획을 수정해야 한

〈표 4〉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직업역할 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N=전체 627, 전문직 301, 비전문직 326)

직 종	변 수	집단(빈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평균	F	평균	F
전문직 취업여성	직업역할 비용	낮은 집단(97)	38.62(a)	12.84***	66.59(a)	25.74***
		중간 집단(114)	36.65(b)		61.43(b)	
		높은 집단(90)	34.74(c)		55.12(c)	
	일반적 직업 역할 비용	낮은 집단(92)	39.23(a)	16.34***	67.15(a)	25.31***
중간 집단(114)		35.94(b)	60.95(b)			
높은 집단(95)		35.32(b)	55.77(c)			
배우자역할과 중첩되는 직업 역할 비용	낮은 집단(93)	38.00(a)	7.94***	65.52(a)	17.77***	
	중간 집단(129)	36.99(a)		61.79(a)		
	높은 집단(79)	34.71(b)		55.77(b)		
어머니역할과 중첩되는 직업 역할 비용	낮은 집단(85)	37.54(a)	3.69*	64.68(a)	12.89***	
	중간 집단(117)	37.01(ab)		62.09(a)		
	높은 집단(99)	35.42(b)		55.94(b)		
비전문직 취업여성	직업역할 비용	낮은 집단(109)	35.47(a)	7.12**	58.70(a)	8.50***
		중간 집단(112)	34.51(a)		55.21(ab)	
		높은 집단(105)	32.64(b)		51.42(b)	
	일반적 직업 역할 비용	낮은 집단(102)	36.13(a)	9.76***	59.39(a)	9.97***
중간 집단(114)		33.88(b)	54.87(b)			
높은 집단(110)		32.83(b)	51.52(b)			
배우자역할과 중첩되는 직업 역할 비용	낮은 집단(105)	34.90	2.51	58.00(a)	5.52*	
	중간 집단(117)	34.50		55.38(ab)		
	높은 집단(104)	33.23		52.03(b)		
어머니역할과 중첩되는 직업 역할 비용	낮은 집단(103)	35.06	2.84	57.74(a)	4.08*	
	중간 집단(123)	34.37		55.15(ab)		
	높은 집단(100)	33.19		52.49(b)		

* p < .05, ** p < .01, *** p < .001

다는 점, 취업남성이나 미혼 취업여성보다 직업상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못하게 된다는 점(장윤옥, 1993) 등을 들 수 있다. 중년기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 가족역할로 인한 직업역할에서의 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전문직이 비전문직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여 전념할 것을 요구하는 직종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 가정역할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규범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여겨진다. 중년기 전문직 취업여성들이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병행할 때는 직업역할로 인해서 가족영역에서 경험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역할로 인

해서 직업영역에서 경험하는 비용도 이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년기 비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의 비용이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 중 생활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직 취업여성이나 전문직 취업여성 모두 기혼 취업여성이라서 가족의 요구로 인해 직장생활에서 방해를 받고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의 비용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감을 의미하는 생활만

족도(Neugarten, 1975)를 감소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연구문제 4)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stepwise) 중회귀분석²⁾을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였다.

중년기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에는 일반적인 직업역할의 보상($\beta=.35$)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어머니역할 보상($\beta=.17$),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보상($\beta=.16$),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역할 비용($\beta=-.15$) 순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자아존중감을 33%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보상($\beta=.35$)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반적인 직업역할 보상($\beta=.30$),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역할 비용($\beta=-.15$), 배우자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 비용($\beta=-.12$), 일반적인 어머니역할 비용($\beta=-.10$)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5개 변수들은 생활만족도를 45% 설명해 주었다.

중년기 비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에는 일반적인 직업역할의

보상($\beta=.16$)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 보상($\beta=.16$), 일반적인 어머니역할 비용($\beta=-.15$), 경제외적 취업동기($\beta=.13$), 근무시간의 융통성($\beta=.12$), 일반적인 배우자역할의 보상($\beta=.11$) 순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이 중년기 비전문직 취업여성의 자아존중감을 33% 설명해 주었다.

생활만족도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비용($\beta=-.27$)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외적 취업동기($\beta=.24$), 어머니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과 보상($\beta=.19$),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역할 보상($\beta=.17$),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 보상($\beta=.14$),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보상($\beta=.13$), 근무시간의 융통성($\beta=.12$)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들 7개 변수들은 생활만족도를 35% 설명해 주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자기인식이나 자기 유능감을 의미하는(Pearlin & Schooler, 1978) 자아존중감에는 가족역할보다 경제적 소득이나 자아실현 같은 가치적인 대가가 있는 직업역할의 일반적인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2)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회귀가정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검정치가 모두 2.0에 근접하여 오차간의 자기상관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표준화된 잔차의 히스토그램이 정규분포에 가까웠다.

〈표 5〉 중년기 전문직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중회귀 분석

(N=301)

자 아 존 중 감			생 활 만 족 도		
관 련 변 수	b	β	관 련 변 수	b	β
1. 일반적인 직업역할 보상	.29	.35***	1.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보상	.87	.35***
2. 일반적인 어머니역할 보상	.24	.17**	2. 일반적인 직업역할 보상	.57	.30***
3.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보상	.18	.16**	3.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 역할 비용	-.39	-.15**
4.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 역할 비용	-.18	-.15**	4. 배우자역할과 중첩되는 직업 역할 비용	-.66	-.12*
			5. 일반적인 어머니역할 비용	-.29	-.10*
상수	19.02			36.21	
F	36.11***			50.24***	
R ²	.33			.45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중년기 비전문직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중회귀 분석

(N=326)

자 아 존 중 감			생 활 만 족 도		
관 련 변 수	b	β	관 련 변 수	b	β
1. 일반적인 직업역할 보상	.16	.19***	1.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비용	-.78	-.27***
2. 어머니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 보상	.53	.16**	2. 경제외적 취업동기	1.25	.24***
3. 일반적인 어머니역할 비용	-.19	-.15**	3. 어머니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 보상	1.43	.19**
4. 경제외적 취업동기	.30	.13*	4.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어머니 역할 보상	.55	.17**
5. 근무시간의 융통성	.24	.12*	5.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 역할 보상	.45	.14**
6.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보상	.16	.11*	6. 일반적인 배우자역할 보상	.41	.13*
			7. 근무시간의 융통성	.55	.12*
상수		17.28			27.33
F		21.96***			35.28***
R ²		.33			.35

* p < .05, ** p < .01, *** p < .001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 기쁨을 의미하는 생활만족도(Campbell et al 1981)에는 가족역할 특히 배우자역할의 일반적인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중년기 부부관계가 중요한 가족관계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심리적 복지의 두 가지 하위영역인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모두 안정되고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보여서 중년기가 자유감과 성숙감이 증대되는 시기(Neugarten, 1975)라는 입장이 지지되었다.

둘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통해서 비용보다 보상을 더 많이 지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역할, 어머니역할, 직업역할의 일반적인 영역과 중첩되는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 양상이었는데 이로써 볼 때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자신이 수행하는 다중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볼 수 있다. 다중역할 중에서도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어머니역

할을 가장 큰 보상과 긴장의 원천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직업역할보다는 가족역할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

셋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배우자역할의 보상이 높고 비용이 낮을 때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다.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의 비용은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비전문직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전문직 취업여성은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둘 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아(O'Neil & Greenberger, 1994) 두 가지 역할을 다 잘 해내려는 의지에서 배우자역할과 직업역할의 중첩에 따른 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비전문직 취업여성은 일의 성격이 단순하여 직업과 가족생활간의 구획화가 잘 되고, 가족과 직장을 분리시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조은숙, 1997) 직업역할과 중첩되는 배우자역할의 비용이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직종에 상관없이 어머니역할의 보상이 높고 비용이 낮을 때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다. 가족역할 중에서 어머니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역할과 직업역할간의 갈등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취업여성

들의 특성이 중년기 취업여성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직, 비전문직 모두 적용되어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어머니역할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직종과 상관 없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은 직업역할의 보상이 높고, 비용이 낮을 때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다. 직종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직업역할 보상/비용은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가족역할과 중첩되는 직업역할의 비용은 비전문직 취업여성보다 전문직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전문직의 경우 비전문직보다 직업역할로의 몰입을 더 요구하고 경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므로(장윤옥, 1993) 가족역할로부터의 보상/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각 역할의 보상/비용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구성하는 하위영역 중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자 존재감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에는 일반적인 직업역할의 보상의 영향이 가장 크다.

여섯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 중에서 생활만족도에는 일반적인 배우자역할의 보상 또는 비용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러한 경향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중년기 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우자역할의 보상이, 비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우자역할의 비용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중첩에 따른 보상/비용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있어 전문직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는 비용의 영향이 더 크고, 비전문직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는 보상의 영향이 더 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 취업여

성이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에 대한 표준이 높아 두 가지를 다 잘 해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수퍼우먼 증후군을 많이 경험하는데(O'Neil & Greenberger, 1994) 이러한 특성이 중년기 전문직 취업여성에게도 반영된 현상이라 보인다. 이에 비해 일의 특성이 단순하고 가족역할과 직업역할간의 구분이 명확한 중년기 비전문직 취업여성의 경우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중첩에 따른 보상의 영향이 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비용보다 보상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점을 볼 때 가족과 직업과의 관계가 긴장과 갈등 관계만이 아니라 보상과 보완의 관계로도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기혼 취업여성의 역할긴장에 초점을 두고 직업역할이 가족역할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앞으로는 긴장 측면 외에 보완의 측면도 함께 파악하여 다중역할의 다양한 특성을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중첩성에 있어 직업역할로 인해 가족역할에서 발생하는 보상/비용과 가족역할로 인해 직업역할에서 발생하는 보상/비용이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중첩성을 직업역할이 가족역할에 미치는 일방적인 방향성만을 상정한 채 주로 갈등 관계로만 파악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영역과 직업영역간의 상호관련성을 양방향적으로, 보다 다면적으로 파악하여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일반적인 배우자역할의 보상, 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부부관계가 중년기에 중요한 가족관계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년기 부부관계의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필요성이 제기된다.

끝으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직종에 따라서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었는데, 전문직 여성이 비전문직 여성에 비해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중첩에 따른 비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족정책이나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작성할 때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집단에 맞는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리라 여겨진다.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이 현재 다중역할에 관여하면서 어떠한 보상/비용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본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 혹은 전체 기혼 취업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김명자(1988). 중년기 위기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명자(1989). 중년기 연구. 서울:교문사.
- 3) 김양희·박충선·서동인·신화용·조병은·최규련(1992).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30(3), 285-305.
- 4)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릴리언 루빈, 김용미(역)(1996). 중년 여성의 좌절과 홀로서기. 서울:정우사.
- 6)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7) 박미령(1988).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박성옥·김정훈(1995).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위한 방안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3(4), 1-13.
- 9) 신기영·옥선화(1997). 중년기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 10) 양연숙(1997). 일하는 어머니의 취업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 대한가정학회지, 35(3), 139-150.
- 11) 옥선화(1982) 한국 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 II. 성심여대 논문집, 13집, 5-34.
- 12) 유가효·박혜인·박충선·조희금(1991).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227-246.
- 13) 유은희(1991). 기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이근희·조명기(1991). 여성노동력의 특성과 이동. 한국생산성본부.
- 15) 이기영·구혜령(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99-112.
- 16)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재순(1991).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생활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18) 이희정·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19) 장재정(1987). 중년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장윤옥(199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이 역할갈등과 시간제약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1)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조은숙(1997).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정도와 지각된 대처효율성 및 관련 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진미정·옥선화(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2(5), 1-13.
- 24) 한국여성개발원(1996, 1997). 여성관련통계지표
- 25) 현온강(199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6) 홍두승(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3), 69-8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7) Amatea, E., Cross, E. G., Clark, J. E. & Bobby, C. L.(1986). Assessing the work and family role expectations of career-oriented men and women: The life role saliences scales. *J. of Marriage & the Family*, 48(4), 831-838.
- 28) Andrews, F. M. & Withe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Y. : Plenum Press.
- 29) Aneshensel, C. S., Frerichs, R. R., & Clark, V. A.(1981). Family roles and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Dec), 379-393.
- 30) Barnett, R. C., & Baruch, G. K.(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135-145.
- 31) Baruch, G. K. & Barnett, R. C.(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3), 578-585.
- 32) Bryant, F. B., & Veroff, J.(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33)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Y. : Russel Sage Foundation.
- 34) Crouter, A. C.(1984). Spillover from family to work : the neglected side of the work-family interface. *Human Relations*, 37(6), 425-441.
- 35) Diener, E. D.(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26) Greenberger E. & O'Neil, R.(1993). Spouse, parent, worker : Role commitments and role-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181-197.
- 37) Kandel, D. B., Davies, M., & Ravies, V. H.(1985). The stressfulness of daily social roles for women : Marital, occupational and household roles".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March), 64-78.
- 38) Keith, P. M., & Schafer, R. B.(1983).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s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J. of Marriage & the Family*, 45(4), 877-884.
- 39) Levinson, D. J.(1996).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N. Y. : Alfred A. Knopf.
- 40) MacDermid, S. M., Heilbrun, G. & DeHann, L. G.(1997). The generativity of employed mothers in multiple roles:1979 and 1991. In Lachman, M. E., & James, J. B(eds.) *Multiple paths of midlife development* (pp.207-24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1) McCubbin, H. I., & Patterson, J. M.(1983). *Family adaptation to crises*. In McCubbin, H. I., Cauble, A. E, & Patterson, J. M.(des.), *Family stress, coping & social support* (pp.26-47).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421)
- 42) Moen, P.(1991). Transitions in mid-life : Women's work and family roles in the 1970s. *J. of Marriage & the Family*, 53(1), 135-150.
- 43) Mottaz, C.(1986). Gender differences in work satisfaction, work-related rewards and values, & the determinants of work satisfaction. *Human Relations*, 39(4), 359-378.
- 44) Neugarten, B. L.(1975). The Awareness of middle age. In Neugarten, B. L.(Ed). *Middle age and aging*. (pp. 3-41).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5) O'Neil R., & Greenberger E.(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 Implications

- for role strain. *J. of Marriage & the Family*, 56(1), 101-118.
- 46) Pearlin, L. L.,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47) Sabatelli, P., & Shehan, S.(1993). Exchange & Resources Theory. In Boss, P. G, et al(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 methods*, (pp. 385-413). N.Y.:Plenum Press
- 48) Small, S. A., & Riely, D.(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 spillover into family life". *J. of Marriage & the Family*, 52(1), 51-61.
- 49) Spitze, G.(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J.of Marriage & the Family*, 50(3), 595-618.
- 50) Thoits, P. A.(1992). Identity structur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Gender and marital status comparisons, *Social Psychological Quarterly*, 55(3), 236-256.
- 51) Thompson, L., & Walker, A. T.(1989). Gender in families :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 parenthood. *J. of Marriage & the Family*, 51(4), 845-871.
- 52) Voydanoff, P. & Donnelly B. W.(1989). Work and family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 of Marriage & the Family*, 51(4), 923-932.
- 53) Wortman, C. B., Downey, G., Emmons, C., Biernat, M. & Lang E.(1990). Women with multiple roles : Role-compatibility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J. of Marriage & the Family*, 52(1), 63-72.